

-(으)ㄴ/는 바

~하는 바 (것, 일)

사실이나 생각, 말한 내용을 대신하는 격식체 의존 명사입니다. 문어에서 것 대신 쓰는 표현으로, 보고서나 계약서, 연설 등에서 두루 나타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바	알다 → 아는 바
완료된 동작	-(으)ㄴ 바	들은 바
있다 / 없다와 함께	-(으)ㄴ 바 없다	들은 바 없습니다
~한 바와 같이	-(으)ㄴ 바와 같이	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
격식체 연결 어미	-(으)ㄴ 바 — 붙여 씀	검토한바 문제가 없었다
별개의 구문	-(으)ㄴ 바에야	~하느니 차라리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바, 완료된 동작은 -(으)ㄴ 바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 알다는 아는 바.가 됩니다. 바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대부분의 용법은 세 가지 패턴으로 정리됩니다. 명사구로 쓰는 경우: 제가 아는 바로는, 느낀 바가 많다. 있다/없다와 함께 쓰는 경우: 들은 바 없습니다. 그리고 -(으)ㄴ 바와 같이로 쓰여 '위에서 말한 것처럼'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.

네 번째 용법은 두 절을 잇는 격식체 연결 어미입니다: 검토한바 문제가 없었습니다 — 이때는 붙여 쓰며, 법률 문서나 공문에서 씁니다.

다음 표현과 혼동하지 마세요: -(으)ㄴ 바에야는 '~하느니 차라리'라는 뜻의 별개의 구문입니다.

■ 예문

- 1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- 2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.
-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- 4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바가 많습니다.
- 5 서류를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.
- 6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인은 단순한 실수였습니다.

■ 비교

것
것은 일상적인 명사와 표현이고, 바는 그 격식체입니다. 서로 바꾸면 격식의 정도만 달라집니다.
아는 것이 없어요. (구어) / 아는 바가 없습니다. (격식체)

-다시피
둘 다 '알다시피'의 뜻이 될 수 있지만, -다시피는 동사에 붙는 어미이고 -(으)ㄴ 바와 같이는 명사구입니다.
아시다시피 / 말씀드린 바와 같이

-(으)ㄴ 바에야
같은 명사를 쓰는 별개의 구문입니다. '~하느니 차라리'라는 뜻으로, 다음 표현과 비슷합니다: -느니.
아는 바가 없다. (아는 것이 없다) / 기다릴 바에야 겠겠다. (기다리느니 차라리 겠겠다)

■ 주의

- ✗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-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어디에서나 그렇듯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습니다.
-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.
명사구로 쓸 때 바는 띄어 씁니다. 검토한바처럼 격식체 연결 어미로 쓸 때만 붙여 씁니다.
- ✗ 야, 내가 아는 바로는 개 안 와.
- 야, 내가 알기로는 개 안 와.
바는 격식체에 속합니다. 일상 대화에서는 알기로는이나 아는 걸로는이 자연스럽습니다.